

2019 국제예술공동기금 한-덴마크 문화예술교류프로젝트 심의총평

- 사업유형 : 2019년도 국제예술공동기금 한-덴마크 문화예술교류프로젝트
- 심의분과 : 공연예술분과 (연극, 무용, 음악, 전통)
- 회의일시 : 2019년 2월 12일(화) 14:00~18:0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세미나실1
- 심의위원(가나다순) : 국민성, 박민경, 박병오, 백승무, 최상철, 허용호

2019년 국제예술공동기금 한국-덴마크 문화예술교류프로젝트 공연예술분과 지원심의는 총 25건, 1,570,890,000원의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사전에 지원신청 자료를 검토하여 사업내용을 숙지하고, 심의 당일 전체 토론과 개별 채점 후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확정하였다. 최종적으로 9건의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분야별로는 연극 4건, 무용 3건, 음악 1건, 전통예술 1건이다. 지원 총액은 333,000,000원이다.

심의위원들은 사업내용의 예술성을 우선한다는 기본방침을 바탕으로, 본 지원사업의 취지에 따른 심의기준을 준수하였다. <한-덴마크 문화예술교류 프로젝트>는 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의 일환으로 '19년도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양국 공동협업·초청 문화예술교류프로젝트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무엇보다 예술적 교류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실현가능성이 실질적으로 교류의 효과(국제적 파급력)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교류 사항을 명확하게 밝히는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업들이 우선순위를 차지했다. 이때 상호 교류 조건뿐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덴마크 측 파트너의 우수성과 신뢰성도 참고하였다. 신청 단체의 이력이나 활동이 우수하여 예술적 성과가 기대되는 협업일지라도 현재 구상 단계이거나 일반적인 창작 지원을 위한 신청 수준에서 계획된 사업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불분명한 내용의 협업, 일회성 이벤트 성격의 사업, 해당 분야의 예술적 발전과 무관한 사업, 사적 교류나 단순 친선 성격의 사업, 일방적 투어나 단체 홍보성 공연 등은, 본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최종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예산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소액으로 분산지원하기보다는 해당 사업이 계획대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배정하였다. 우수한 사업이 다수 있었으나, 전체 지원액의 한도로 인해 선정되지 못한 점은 아쉬웠다. 이미 리서치 작업이 완료된 사업도 있는 만큼, 좀 더 명확한 사업계획과 합리적인 예산안을 보강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를 희망한다.